

영산강~다도해 유람선 뜬다

2012년부터...보 2개 만들어 물 3천만m³ 저장

4대강 살리기 중간보고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12년 영산강과 다도해를 잇는 유람선이 뜨게 된다. (관련기사 3·8면)
또 영산강 유역의 마한 문화권이 복원되며, 영산강과 한강, 낙동강, 금강을 종단하는 자전거 대회가 개최된다. 아울러 영산강에 2개의 보(洲)를 신설해 충분한 물을 확보하고, 영산강 수질을 2급수 수준으로 끌어올려 생태를 복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국무총리 등 7개 정부부처 장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4대강 유역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중간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통한 지역특화 발전을 위해 영산강은 홍수방어와 수질개선훈수를 중심으로 각각 개발하기로 했다. 또 섬진강은 국토부가 주관해 자전거 길과 생태하천 조성 등 자연환경 보존 위주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산강과 다도해를 잇는 친환경 리버크루즈(River Cruise)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특히 옛 뱃

길 재현과 마한문화권 복원 그리고 영산강 유역 문화유적 정비 등을 통해 호남의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영산강과 한강, 낙동강, 금강 등 4대강을 종단하는 '투르 드 코리아' 자전거대회를 개최하고, 각종 친환경 여가·문화공간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문화가 흐르는 영산강'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물부족과 이상기온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영산강에 모두 3천만m³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2개의 보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영산강과 섬진강 일대에 설치된 기존 농업용 저수지 22개의 제방을 높여 물 저장용량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홍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영산강 하구둑의 배수문을 증설하는 것은 물론 담양과 화순에 2개의 홍수조절지를 조성하고, 나주에도 강변저류지를 만들기로 했다. 108km에 이르는 자전거길 조성계획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12년까지 영산강의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으며, 물환경 테마파크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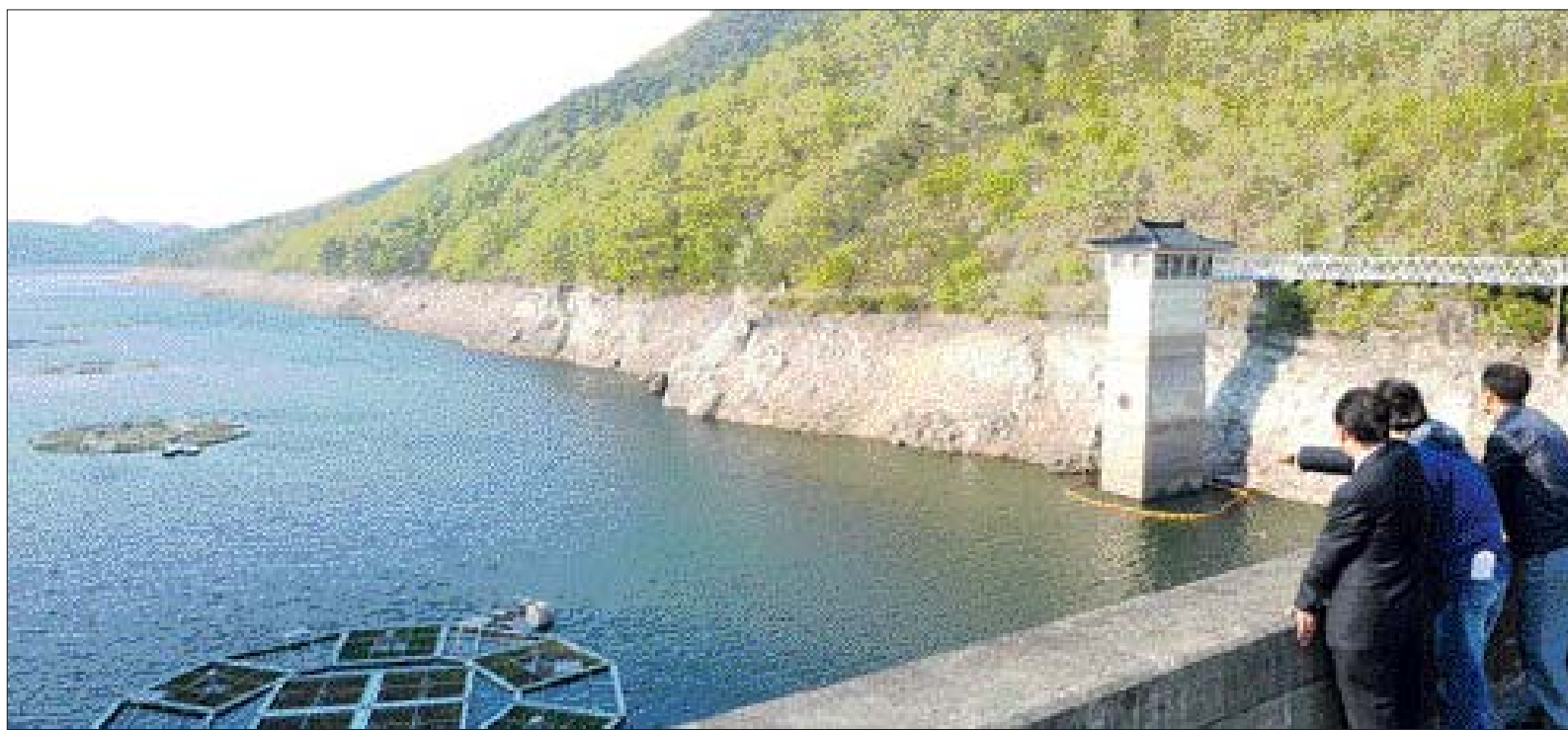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경각지 보상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지역업체가 관련 사업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도도급제를 확대하고, 일부 사업은 전남도 등 해당 지역 지자체에 위탁 발주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하기로 했다. 특히 영산강 권역에서 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광주천은 최우선적으로 수질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다음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며, 정부는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정부고시 및 주민보상,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가능한 구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경각지 보상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지역업체가 관련 사업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도도급제를 확대하고, 일부 사업은 전남도 등 해당 지역 지자체에 위탁 발주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27일 상수원인 동복호의 저수율이 최대 담수량(9천200만ℓ)의 17.3%대인 1천600만ℓ로 떨어지자 급수대책 마련을 위해 수위를 점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 밤 전국대회

제54회 호남예술제

음악·국악·무용부문 4월 29일~5월 22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호남신학대학교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54회 호남예술제 경연 일정은 아래와 같이 발표됩니다. 예이부터 아홉집은 격려와 성취를 바랍니다.

◆ 관련 일정 ◆

일시	장소	주최	후원
4월 29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5월 1~22일	호남신학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총동맹회

◆ 대회 일정 ◆
1. 선발전: 4월 29일(수) 11:00~12:00
2. 본선: 5월 1~22일(토) 11:00~12:00
3. 대외공연: 5월 29일(토) 19:00~21:00
4. 결연공연: 5월 29일(토) 19:00~21:00
5. 시상식: 5월 29일(토) 19:00~21:00

◆ 문의처 ◆ (062) 270-0041, http://www.kwangju.co.kr

주최: 광주일보사
협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호남신학대학교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물 사오는市, 물 평평 쓰는市民

광주시 하루 1천만원 추가 지출 속 절수운동 미흡

광주시 주요 상수원인 동복호가 장기가름으로 바닥을 드러냄에 따라 하루 1천여만원의 추가 상수원 확보 비용이 드는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수도물 사용량은 예년과 다르지 않아 가뭄이 지속될 경우 수자원 확보비용이 늘 전망이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절수운동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 주암호로부터

구입하는 원수량을 기존 20만ℓ에서 26만ℓ로 늘림에 따라 1일 1천278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들게됐다.

시는 그동안 동복호와 주암호에서 각각 25만ℓ, 20만ℓ의 물을 취수·공급해왔으나, 동복호가 최근 17%대의 저수율로 바닥을 드러냄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동복호는 광주시의 취수원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았으나, 주암호는 수자원공사의 상수원이어서 1일 20만ℓ를 사용하는 데 연간 140억원 가량을 지불해왔다.

시는 이번엔 원수량을 늘림에 따라 5월 한달 동안에만 한국수자원공사에 3억8천여만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광주 시민들의 1일 수도물 사용량은 36만9천800ℓ, 1인당 1일 사용량은 264ℓ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와 같은 수도물 소비량이 지속되고, 5월 내에도 큰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상수원 확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광주시

남구 월산동, 사동, 봉선동 일대 고지대 급수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여기에서 동복호의 현재 저수율이 최대 담수량(9천200만ℓ)의 17.3%인 1천600만ℓ로 떨어짐에 따라 따라 수질까지 악화돼 수도물 정수비용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5월 중에도 큰 비가 오지 않는다는 일기예보가 나와 수자원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라며 "가정에서 물을 아낄 경우 귀중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계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물절약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

돼지 인플루엔자 세계 곳곳 퍼졌다

스페인·뉴질랜드까지 급속 확산...멕시코 사망 103명으로 늘어

광주·전남 치료제 1천여명분 불과

돼지 인플루엔자(SI)의 최초 발생지인 멕시코에서 26일(현지시간) 사망자가 103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SI가 뉴질랜드, 스페인까지 번지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스페인 정부는 27일 자국민 1명이 돼지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럽에서 돼지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리니다드 히베네스 스페인 보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남동부 스페인 알렌사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2명에 대한 역학 조사결과, 돼지 인

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고 AFP가 전했다.

이 감염자는 23세의 남자로서, 지난 22일 멕시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스페인 정부는 20여명의 감염 의심 환자를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뉴질랜드 당국은 오클랜드 북부 노스쇼어 지역 고등학교 10명이 멕시코 여행 뒤, A형 돼지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돼지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7일 현재 광주·전남 시·도가

확보한 인플루엔자 치료제는 1천여명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확보량이 양 시·도를 합쳐 1천175명분에 그쳤다. 시는 타미플루 300명분, 전남도는 875명분을 확보한 실정이다.

광주시는 최근까지 966명분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사용기간(5년)이 지나면서 지난 2월 모두 폐기처분한 뒤 이날에야 300명분을 확보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전남도에 300명분을 긴급배정하기로 했으나 이 분량을 모두 합쳐도 광주·전남지역에는 인플루엔자 치료제가 1천475명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알려질 타

미플루와 '리렌자'의 보유량을 현재 250만명분에서 500만명분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이 지역 보유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미지수다. 타미플루는 독일에서 수입하는 특수약품으로 질병관리본부에 통해 각 자치단체에 보급된다. /최권일·윤영기자 cki@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2009

WORLD CERAMIC BIENNALE KOREA

4.25 - 5.24

이천·광주·여주
Icheon, Gwangju, Yeosu
www.wocef.com

물의 모험

ADVENTURES OF THE FIRE

이천·광주·여주 세계도자비엔날레 2009
www.wocef.com